

“유아기의 행복을 찾아라”

스트레스 받는 남자들의 원초적 본능

아내들 사이에서 '큰애기'라 불리는 남편들이 있다. 엄마에게 매달리는 아이들처럼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남편들이다.

이런 남편들이 많은 탓에 한국의 아내들 사이에서는 “댁의 큰아들도 잘 있느냐?”는 농담으로 상대방 남편의 안부를 묻곤 한다.

조금만 아프도 엄청난 염살 아내 아프면 짜증

고통을 잘 참아야 남자답다고 알고 있는 남편들이지만 아내 앞에서는 아픔을 과장한다. 조금만 몸이 아프면 온갖 약을 다 찾으려서 아내의 관심을 요구한다.

“감기라도 조금 걸려봐요. 꼼짝도 안하고 누워서 밤새 끄공 앓아대요. 옆에 자는 사람은 한잠도 못 자지요. 꼭 옆에서 있으라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와라, 저걸 사와라,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남편이 며칠 아프고 나면 내가 앓아 눕는다니깐요. 아픈 단 소리가 나올까봐 항상 먹는 데 신경쓰고 철마다 보약 대령하고 그래요.”

염살이 심한 남편들일수록 아내가 아픈 데에는 무심경하다. 여자들은 몸 아플 때 돌라줄 사람 없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참아내는 데에 이골이 나 있는 경우가 많다. 아내의 병이 안 염살 심한 남편들에게 하등 환영받을 일이 못되기 때문이다.

“내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아냐?’는 문제가 돼 버려요. 이참고 짜증스러워 하니까 마놓고 아프지도 못해요.”

“밤중에 갑자기 몹시 배가 뻐뻐한 적이 있었는데 쿵쿵도 자기만 해요. 잠 깰까봐 지로 참다가 나중에는 안되어서 깨웠는데 일어나더니 ‘그래? 약 먹어!’ 그러더 또 잠들어요. 아마 남편이 만큼 아팠으면 온 집안식구 다 깨우고 의사 불러오라 소리 소리 질렀을 거라구.”

만 쳐다보고 있어주오' 아내의 제왕이기를 원하는

기성세대의 많은 남편들은 집에서 제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 제왕들은 아내에게 자기 유일하고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정당한 안정을 느끼는 모양이다. 아내들이 가장 우스워 하 주문 중에 하나는 쉴 때도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날마다 늦게 들어오고 주말이면 운동가고 늘 전 혼자 있는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어쩌다가 일요일에 집에 있게 되면 꼼짝도 못하게 해요. 자기 먹을 것 해주는 일 말고는 자기 옆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부엌일을 할 수도 없고 청소를 할 수도 없고, 신문도 보지 못하게 하고 뜨개질도 못하게 해요. 자기한테 이런 저런 말 시켜주고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지요.”

“자기가 TV를 볼 때는 나도 같이 봐줘야 하고 밥 먹을 때는 물론 옆에 있어 주어야 해요. 그 옆에 앉아 있더라도 바느질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는 건 질색을 해요. 나는 아무 관심도 없는 스포츠 중계방송이라도 우두커니 봐줘야 하는 거지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독점하고픈 남편들은 종종 아이들에게 질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많은 아내들은 아이에게만 신경을 쓴다고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놀라고 곧 익숙해져 버린다. 애들 아버지라기 보다는 조금 더 큰 아들이 한명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내의 체력과 역할 능력은 한정돼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기대고 싶지만 남편 쪽에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커닝 또 한명의 아들 몫의 애정과 손길을 요구했을 때 아내들은 외로움을 느낀다.

집안 일은 커녕 잠옷도 걸 줄 모르는 남편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 방안을 들여다 본다. 잠옷바지가 동그라미 두개의 도너츠 모양으로 남겨져 있다. 목욕탕에서 들고 나온 젖은 수건이 이불 위에 던져져 있다.

장롱문은 열려 있다.

부인 씨는 이런 방 풍경에 익숙해져 살아간 지 39년째다. 그동안 잔소리도 하고 큰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익숙한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다. 부인의 하루는 이런 방을 청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 가고 난 방을 청소하는 것과 똑 같은 기분으로 널려진 잠옷바지를 집어 들고 청소를 시작한다.

“남자 잔신경 안 쓰게 하려고 모든 집안일을 다 내가 알아서 했어요. 이사 갈 때도 집 고르는 것부터 짐 옮기는 것까지 전부 내가 하고 남편은 아침에 출근해서 이시간 집으로 퇴근하면 되도록 해주었어요. 못 하나도 안 박아주고 수도 꼭지 바깥 갈아끼우는 것도 내 일이에요. 커튼을 새로 달려면 너무 높아서 현기증이 나는데도 전혀 도와주

신경쓰지 말고 다녀오라니 말이 안되지요.”

권위주의의 이면은 유아성 제일 편안한 삶의 전략

아내들은 이런 식의 이기주의가 남편들의 공통점이라는 데 같은 의견이다. 표현 정도,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자기 챙겨주면 좋아하고 안 챙겨주면 싫어하는” 이기주의에는 양보가 없다는 것이다.

좀 ‘앙큼한’ 유형에 속하는 남편이라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눈치’ 같은 간접적인 표현 방법을 써서 아내가 미리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손님을 집으로 불러야 한 다거나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절대로 직접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분위기를 띄워서 내가 눈치채지 않을 수 없게, 내가 스스로

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이 움직일 수 있는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가정이 할 일은 다 했다. 할 일 다 한 후에는 가정에 얽매어 살면 안된다”

이런 인생관에 따라 부인은 일부러 가정의 세간살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지 않는다. 부인 부인이 창문을 달아 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그는 “한번 해주면 자꾸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거절했다. 그는 지금도 김치가 어디 들어 있는지 모르고 심지어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먹는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역할을 단 대가로 그가 원하는 자유로운 인생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략인 것이다.

또 아내가 자기 옆에 있기를 요구하고 바느질하는 것도 싫어했던 독점욕이 강했던 한 남편도 형제간에는 ‘아버지’ 노릇을 자청한 사나이였다. 아내의 수입은 자기가족의 생활비로 쓰고 그의 수입은 상당부분 아버지 역할에 쓰면서도 즐거워 했던 후덕한 ‘형님’이었던 것이다.

이런 남편들은 자신의 행동을 객관화시켜 생각하고 웃을 줄도 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의 얘기같은 행동들이 우스운 것이다. 그러나 그걸 수정할 생각은 없다. 그들에게는 자기같은 속성을 얼마든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누라’들이 옆에 있기 때문이다.

‘바퀴벌레’ 큰애기의 차이 넘넘한 가슴의 한국 아내들

젊었을 때는 아내들은 고달프더라도 엄마노릇을 잘해내며 살아간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어린애 같은 남편들을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한국의 아내들의 품은 아직껏 넘넘한 엄마의 품과 닮아 있는 데가 많다.

가부장권이 센 대표적인 나라인 일본 여자들은 젊은 시절 놀려산 억울함을 남편이 늙었을 때 갚아준다. 일본 남자들은 가정 내를 돌리라고 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점에선 한국의 남편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정년퇴직을 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쓸모없는’ 남편에 대해서 일본의 아내들은 갖가지의 모욕적인 별명을 붙여놓았다. 덩치는 큰데다 처치곤란이라 해서 ‘큰 쓰레기’, 거추장스럽게 달라붙는다 해서 ‘젖은 낙엽’, 할일 없이 집안을 어슬렁 거린다고 해서 ‘바퀴벌레’, 정년퇴직

후에는 자기 정체감이 없어졌다고 해서 ‘레테르’ 떨어진 빈 강통’ 등으로 무력한 남편을 부르고 있다(동아일보, 일본 이야기 21).

우리나라에서도 실업자 남편이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쓰레기나 바퀴벌레 수준으로 추락당한 일본 남자에 비하면 한국 남자들은 꽤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 편이다. 모성적 자질을 훈련받아온 탓인지 한국의 아내들은 아직 남편들을 모욕할 만한 언어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그저 ‘큰애기’ 정도의 사랑스런 별명을 붙여보면서 슬쩍 눈치를 살피는 중이라고 할까?

정서적 긴장 푸는 휴식 ‘유아기로 돌아가자’

미국의 심리학계에서는 남성성다움의 스트레스가 남성의 생명을 줄인다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다. 흔히 이상적인 남성상에 요구되는 강인함, 공격성, 과묵함, 인내심 등등의 항목들이 인간의 정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자답게 커야 한다는 교육방식에 따라 자라난 성인남자는 몸과 나이는 성인의 것이지만 감정의 분화상태는 7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 남자들의 4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한다. 산업사회의 유능한 남성상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사내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한국남성들은 세계 어느나라 남자들보다도 스트레스가 심한 편에 속할 것이다.

경직된 남성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남성들에게도 정서적인 휴식처가 필요할 것이다. 한동안은 호스피스 바에서 향락적인 발산을 하기도 했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마시기에 빠져들기도 한다. 또 고스톱과 스포츠에 열중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 자기 몸만치는 덧없고 실없는 행동에 불과하다. 영리하고 실속있는 남자라면 안전한 장소에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휴식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권위와 의무, 형식의 틀에서 아무도 모르게 슬쩍 빠져나와서 어머니에게 매달리던 유아기의 정서에 젖어들었다가 오는 것— 마누라 앞에서 큰애기로 불리는 남편들은 바로 이런 휴식을 찾아낸 것일지도 모른다.

남녀의 역할이 바뀌었다면 여자들도 남편 앞에서 ‘애기노릇’ 하는 즐거움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아기의 행복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일 테니까 말이다. <김효선 기자>